

“시와 그림이 있는 ‘첫눈’처럼 기다려지는 공간”

정윤천 시인
화순 도곡에
복합문화공간
‘첫눈’ 열어

갤러리·도서관
북카페 등 갖춰

“첫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겨울날 희끗희끗 흩날리는 송이눈을 떠올릴지 모르겠다. 바람을 타고 낙화하듯 사뿐 사뿐 내리는 첫눈을 보노라면,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어린 시절 기다렸던 첫눈과 달리 어른이 된 지금 떠오르는 첫눈의 이미지는 사뭇 다르다. 어렸을 때는 이미지와 느낌에 사로잡혔다면, 지금은 불편을 견뎌야 하는 현실적 이유들과 마주해야 한다.

그러기에 첫눈은 아이의 마음, 시인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온전히 그 느낌을 품을 수 있다. 혹여, 잃어버린 첫눈의 느낌을 찾고자 한다면 이곳에 들르는 게 어떨까. 최근에 화순에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첫눈’ (도곡면 원화리 282-2)은 이름만큼이나 겨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그렇다고 차가운 이미지는 아니다. 따스한 감성과 풍경은 한번쯤 들리고픈 생각을 갖게 한다.

주인장은 정윤천 시인. 실천문학으로 등단하고 지난해 ‘십만원의 사랑’으로 제13회 지리산문학상을 수상한 전업 작가다. 긴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 첫눈에도 ‘나는 예술가다’라는 아우라가 넘치는 시인은 “그동안 안 본 사이에 ‘큰일’을 하나 저질렀다”며 기자를 맞았다. 타원형의 빨대 안경에 자연스럽게 기른 단발머리가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준다.

그는 “원래는 동생이 동물체험 공간을 위해 조성했지만 여의치 않아 중단된 상태”라며 “비어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정윤천 시인이 화순 도곡면에 연 복합문화공간 ‘첫눈’.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건물을 포함해 주위 부지가 3000평이다. 외부나 ‘첫눈’이라는 이름이 한겨울 숲에서 만난 따스한 카페를 떠올리게 한다. 노란색 출입문과 사각의 통유리가 동화적 감성을 환기한다. 무엇보다 작고 앙증맞은 빨간 우체통이 눈길을 끈다. 첫눈이 오면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라는 뜻이려니 싶다.

안으로 들어서자 자연스럽게 구획된 공간들이 나온다. 1층에는 카페 겸 공연장,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등이 있다. 일층에서는 북 토크를 비롯해 출판기념회, 음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층에는 다양한 그림 작품이 걸려 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곳이 갤러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층은 강의와 세미나장 등으로 쓸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추고 있다. 카페 옆으로는 조만간 고미술품 경매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몇 년 전에도 다른 곳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저는 시와 그림은 일관성 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리될 수 없다는 뜻이죠.”

시인은 문턱을 낮춘 갤러리를 자랑한다고 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림에 대한 감정을 풀 수 있는 ‘소박한 미술관’을 자랑한다는 것이다. 문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채 전시를 했는데 예상밖에 완판을 했다. ‘첫눈’의 의미에 대해서 묻자 중의적 답변이 돌아온다. “처음 누군가를 만나거나 대할 때, 겨울날 기다리는 첫눈의 이미지를 생각했다”면서 “한편으로 ‘너와 내가 처음 보는 처음의 눈(目)의 의미도 함의한다’고 설명했다.

듣고 보니 ‘첫눈에 반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 (반하지 않고는 깊이 알거나 다가설 수 없으므로).

시인은 본래 시를 쓰는 업 외에도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 잡지사 기자와 이름을 대면 알만한 계간지 주간, 창작 강의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 지난해 시집 발간 당시 인터뷰에서 그는 “그동안은 문화와 동떨어진 일에 매달려 있었다”는 말로 시를 쓰는 일에 매진하지 못했던 저간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와 이야기하면서 느낀 것은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뭇 ‘시적’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생애적으로 시인의 기질을 타고난 듯하다. 향후 복합공간이 지향점을 물었다니 ‘문화발전소’라는 집약적인 말이 돌아온다.

“책을 읽고 토론하고 문화 전반의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을 자랑합니다. 언제든 찾아와 시와 그림과 예술을 논할 수 있는, ‘첫눈’처럼 기다려지는 그런 공간 말이예요. 또한 지역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남도를 대표하는 ‘문화발전소’를 꿈꾸기도 하구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양림동 골목 카페·식당이 예술공간으로

예술가·상인·주민 함께 미술축제
25일부터 ‘양림골목비엔날레’
마을내 점포 곳곳에 작품 전시



양인모

나무아트폴리곤 등 10곳 이상의 사립미술관과 작가 작업실 등 문화공간도 방방해 볼 수 있다.

“기획전시-임대전은 빈 점포 4개소에서 청년 예술인들이 작품을 소원도 전시하거나, 공간을 활용한 아카이빙 프로젝트 등 실험적 시도를 통해 주민, 관광객에게 특색있는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기획이다. 주최측은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참여 점포 쿠폰카드 제작해 전시 기간에 맞춰 상권 그랜드 세일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0양림골목비엔날레의 가장 큰 특징은 정통적인 의미의 예술공간 뿐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카페, 식당 등에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소규모로 전시, 마을 곳곳을 예술 공간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주제전시-영업부’에는 도로서, 라봉커피, 마리 오세프, 메타포, 양림148, 양인제과 등 18곳의 카페와 식당이 참여했다. 참여 작가는 김영태, 다음, 박구환, 신수정, 양경모, 이승하, 이이남, 이조흠, 정은화, 최순임, 한부철, 한희원, 황인호 13명이다. 또 행사 기간 중에는 유희매문화관, 이이남 스튜디오, 한희원미술관, 갤러리고철, 호랑가시

25일 오후 6시 ‘10년후그라운드’ (광주 남구 양촌길 1)에서는 오프닝 토크 ‘코로나 시대의 지역 예술’이 펼쳐지며 오프닝 공연으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골목콘서트를 온라인 생중계한다.

이번 행사는 양림동에서 거주, 활동하는 예술인과 문화기획자들의 협의체인 ‘양림미술관거리협의체’가 기획했으며 내년 2월에 열리는 컨택트 시즌에는 펀딩 및 집객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행사 기간 중 ‘10년후그라운드’ (광주 남구 양촌길 1)에 웰컴부스를 운영한다. 문의 070-4239-504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작은 레퀴엠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

달빛오디세이, 24일 우제길미술관



곳에 있었다. 그 일은 아직도 씻을 수 없는 충격으로 남았다. 그는 이번 공연에 대해 ‘한 예술가의 고백’이라며 살아있는 모든 어른들의 부끄러움을 주제로 곡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작은 레퀴엠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 공연이 24일 오후 7시30분 우제길미술관(광주 서동구 윤림동 647)에서 열린다.

올해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공연은 창작그룹 달빛오디세이가 주최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주시 등이 후원한다.

공연에는 달빛오디세이 대표이자 작곡가인 김현욱(사진)이 쓴 칸타타 10곡이 연주된다. 공연은 ‘안식’으로 시작해 ‘낙원’으로 마무리한다. 8개의 찬가는 ‘연민’을 비롯해 ‘회담’, ‘봉헌’, ‘감사’, ‘축복’, ‘신비’, ‘행화’, ‘경건’ 등이다.

1980년 5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김 씨는 계엄군이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트럭에 싣던 그날 그

이날 공연에서는 지역 음악인들이 바흐의 마태수난곡도 들려준다.

공연에는 소프라노 박성경, 메조소프라노 정상희, 테너 김진우, 바리톤 김지욱 등이 참여한다. 또 바이올린 윤성근·이혜명, 비올라 정호근, 첼로 박효은, 피아노 천현주, 오르간 문수현, 퍼커션 오미정, 오아트리미 장나란이 연주를 맡아 함께 호흡을 맞춘다. 문의 010-3611-860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김옥길 호른 리사이틀 25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호른리스트 김옥길(사진) 제6회 독주회가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레퍼토리는 엠마누엘 샤브리에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라르케토’, 프란시스 풀랑크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엘레지’, 폴 뒤카 ‘빌라넬’ 등이다.

또, 장 미셸 드페이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알파’, 까미유 생상스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로망스 작품번호 67’, 장 프랑세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디베르티멘토’ 등도 들려준다.

이번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김민주(한양대·성신여대 반주강사)가 협연자로 참여한다.

김옥길은 북포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으로 활동중이며,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와 동대학원 수료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졸업, 체코 프라하 음악원 디플롬 과정, 이탈리아 노르마 시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등을 졸업했다.

전석 초대. 문의 010-8121-334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광주·전남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공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